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AUG 27
Copy 1962

불'길은 타오른다!

보천보의 불'길은…

증산의 불꽃을 피웠고…

우리의 성과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붉은 마을 좋구 좋네

을 아, 이 사람! 오래간만일세 (얼사 안으며)

갑 정말 제대'장을 가지고 서로 헤여져서 자네는 농촌으로 나는 공장으로 떠난지 벌써 53년…1961년 (손'가락으로 꼽으며) 9년이 됐네그려! 그간 산천도 사람들도 많이 변했지! 그래 지금 자네 어디 있나?

을 보다싶이 자네허구 맞서 있지 않나?

갑 요런 맹꽁이 같은 친구라구, 어느 리에 사느냐 말야!

을 청. 황. 홍리에 …

갑 뭐? 뭐? 청황홍리라구?

을 그럼 산은 푸르고 가을이되면 들은 오곡이 무르익어 누렇고 마을에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배우는 붉은 사람들로 가득찬 데서 산단 말야!

갑 자네 천리마를 탄 모양이로군!

을 그렇지 그래 우리 리 민청원들은 중앙 민청의 영예의 붉은기를, 우리 상원군 금성 조합 작업반원들은 천리마 칭호를 받았지, 그리구 지난 5월에는 천리마 조합 궐기 대회를 가졌다네.

갑 대단한데… 그런데 자네 취하지 말게.

을 이사람이 내가 술 주정뱅인 줄 아나.

갑 이런 답답이라구야, 승리에 도취하지 말란 말일세.

을 지금 우리 조합원들의 붉은 마음, 불타는 정열, 그 기세는 말할 수 없네.

갑 그런 기세는 동무네 조합 뿐만 아니니까 올해 알곡 100만 톤 증산은 문제 없지! 문제 없어!!

을 문제 없잖구, 우리 조합만 해두 국가 알곡 계획을 207%로 완수하여 4 차 당 대회 앞에 황금 전야를 선물하려고 들끓고 있네.

갑 207%! 보통이 아닌데!

을 그 뿐인가 호박도 대단하지!

갑 호박이 대단하다구?

을 그럼 최'둑, 발'둑, 도랑'둑을 리용하여 총 길이 50 리나 되게 호박을 심어 놓았는데 이 호박에서 28만 원이 나오게 되니…

갑 여보게, 호박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을 호박으로 술을 만들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돼지 사료로도 리용하구.

갑 그돈만 해두 대단하군.

을 이미 우린 작년 농사에서 중농, 부유한 중농이 된 셈이야! 금년 농사를 잘 지으면 더 잘 살게 될 것은 뻔한 일이지

갑 그러니 신'바람이 절로 나겠네.

을 나다 뿐이겠나!! 조합원들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당과 수령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 제도에서 삶을 누리는 행복에 젖고 있다네.

갑 얼시구 절시구 사회주의 제도 좋구 좋네,

을 붉은 마을로 전변되니 농사는 절로 잘되여 좋고.

갑 농사가 잘 되니 생활이 꽃피여 좋고…

을 쌀독이 풍족하니 인심은 절로 좋고… 공산주의 미풍이 확립되여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으이!

갑 여보게! 지금 우리 나라 각처에서는 붉은 마을, 붉은 거리, 붉은 사람들이 우후 죽순처럼 솟아나니 공산주의 지상 락원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네

갑, 을 붉은 마을 만세!

피 호주

당 대회로 가는 길

안 창수 그림

현장에서 풀린 의문

함흥 동력 대학 한 상연 그림

모범을 따라 모두가 모범

—아니, 내가 뭘 잘했다구 이러나…

소년단원—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두가 모범 일'군이 됐구나

함남 단천군 직절리 심 상기 그림

금산 정복자들

퉁! 퉁탕! 대공 발파가 련방 터지더니 금산 (금덩어리산) 허리가 쩍쩍 갈라 지면서 보물 덩어리들이 왈칵 내려 앉는다.

수상 동지가 통양 광산을 현지 지도하신 이후 몇 세기를 두고 잠 자던 보물산이 잠을 깨고 기운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채굴장에서 굴착기가 용기를 내고 현장에 접근한 공기 압축기가 기운을 내 뿜는 바람에 장수 바우 앞에서는 고속도 굴진에서 이룩한 신기록이 깨트러지고 말았다.

년말까지 하자면 계획에다 38만 톤을 덧붙여서 100만 톤 고지를 단숨에 돌파하겠다는 광부들의 기세는 불덩어리와 같이 이글거렸다.

이때 조쇄장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게 되였다.

수송 콤베야를 돌려 주는 《갸리야 부라껫트》가 홍이 나서 종합 슈—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석을 얼마든지 받아 먹겠다고 장담을 하다가 그만 《곡절부상》을 당했다.

공무 직장에서는 이 상처를 치료한 다음 회전 속도를 높여서 기운을 도꾸어 주었다. 그리고 주유 관리 체계를 고쳐서 《식욕》도 돋과 주었다. 그랬으나 《갸리야 부라켓트》의 수명이 장수하지 못했다.

《…이건 어린 아이가 어른의 짐을 걸머진 격이로군! 모가지가 열 개 붙어서두 감당 못하겠소. 대담하게 콤베아 기본 용량을 확장하는 방법 밖에…》

힘에 겨웁게 광석을 받아 물고 씩씩거리는 콤베아를 유심히 들여다 보면 공무 직장 정 원환 동무가 하는 말이다.

그러자 합리화 운동자들은 정 원환 동무의 착안을 지지해 나섰다.

그 바람에 800 미리 수송 콤베아를 1,200 미리로 늘쿠고 조쇄장 사별 처리 공정은 어느덧 합리적으로 개조되였다.

그런 이후부터 수송 콤베아는 슈—트를 통해서 쏠어 나오는 광석을 암만 받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무탈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 생산과 처리 공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금산 채굴장 부근에 이동한 공기 압축기가 전례 없는 기압을 내고 엑쓰까와돌, 자동차 등 기계화 부대가 금산 고지를 점령하게 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조쇄장은 채굴장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였다.

그래서 조쇄장 처리 공정을 두 계통으로 확장하는 길만이 이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합리화 브리가다와 행정 기술 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는 토론들이 거듭 진행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전 수복 부지배인은 기술 협의회에서 한 장의 지도서를 펼쳐 놓으면서 결론을 내리였다.

《…허천 청년 광산에서 쟈이레뜨 구랏샤를 해체해 와야 조쇄장을 두 계통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풀립니다》

이 회의에서 떨어진 결론이 있은 다음날 21 명으로 조직된 《보천보 돌격대》가 청년 광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며칠이 지나서 자동차 운전수 리 명선 동무가 광산에 헐떡거리며 뛰여 와서 지도부에다 난처한 복명을 했다.

《…왜정 때 일본놈들이 석달씩 걸려서 운반하고 두달을 설치했다는 중기계가 해발 1,200 메터나 되는 허천 청년 광산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36 도의 경사 도로이고 90 도 급 카브가 세군데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현지 보고를 들은 업무 부지배인과 수송 부장은 검차원의 립장에서 생각을 짜보고 다른 지도 일'군들은 로동 안전원의 립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았다.

그랬으나 누구 하나 확고한 결심을 인차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다.

이때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김 용태 운전수가 자기를 《보천보 돌격대》 보충 성원으로 보내 줄 것을 지도부에 요청해 나섰다.

광산 지도부에서는 김 용태 운전수의 뜻을 알아 마치고 그의 지원을 허락하였다.

현지에 도착한 김 용태 동무는 먼저 도로 형편부터 료해하였다.

자동차 엔징 후엔다 스푸링 다이야 공기 폼프 상태까지 세심히 검토한 용태 동무는 자기에게서 전시에 긴장되였던 준비 상태가 풀리지 않았는가를 검토해 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계가 해체되여 있는 고지에 차를 몰고 올라 갔다.

첫탕에서 용태 동무가 8 톤짜리를 무사고로 운반하게 되자 사람들은 모두가 눈이 하늘로 올라 갔다.

이걸 목격한 리 명선 동무도 자기의 안일성을 톡톡히 깨달았다.

기세 충천한 돌격대원들은 불과 이틀도 못 되여 육중한 기계를 다 해체 운반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금산 정복자들 앞에 맞다들었던 난관은 여지 없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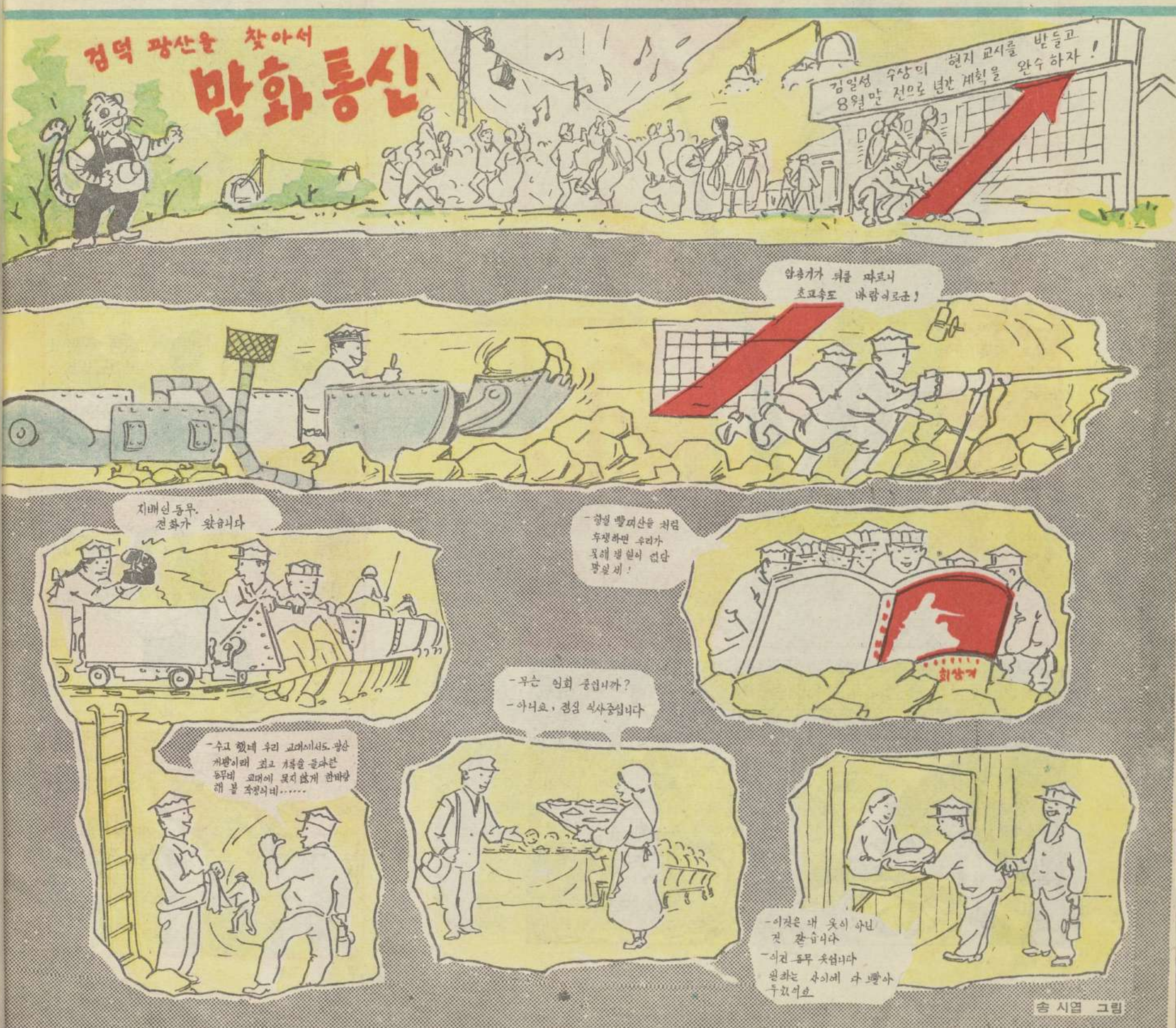
그래서 광석 처리 공정에서 걸렸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100만 톤 고지를 향하여 줄달음치게 하였다.

서 득창

비날론 속도로!

송 시엽 그림

검덕 광산을 찾아서 만화 통신



송 시엽 그림

 송 시엽 그림

판이한 두 제도

북조선 남조선

원 광수 그림

최 영근 그림

굶주림에 대한 《대접》 (남조선에서)

—영남아! 우린 저 미국놈 때문에 굶주려야 하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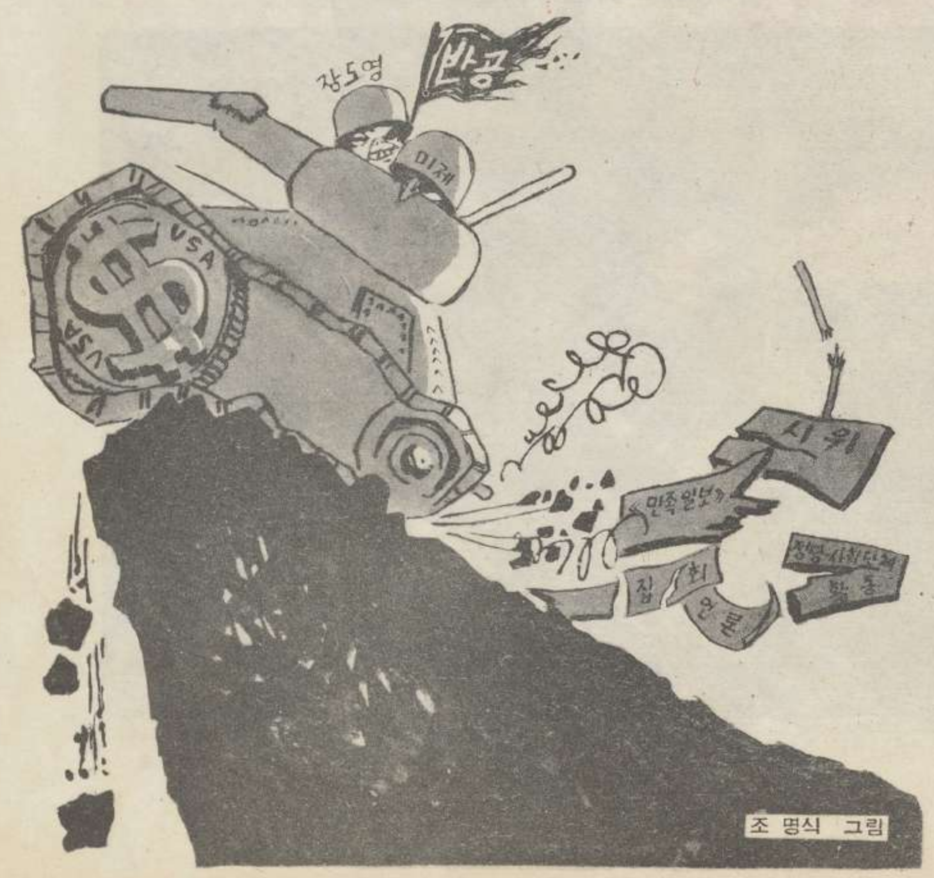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서산 락일

허 능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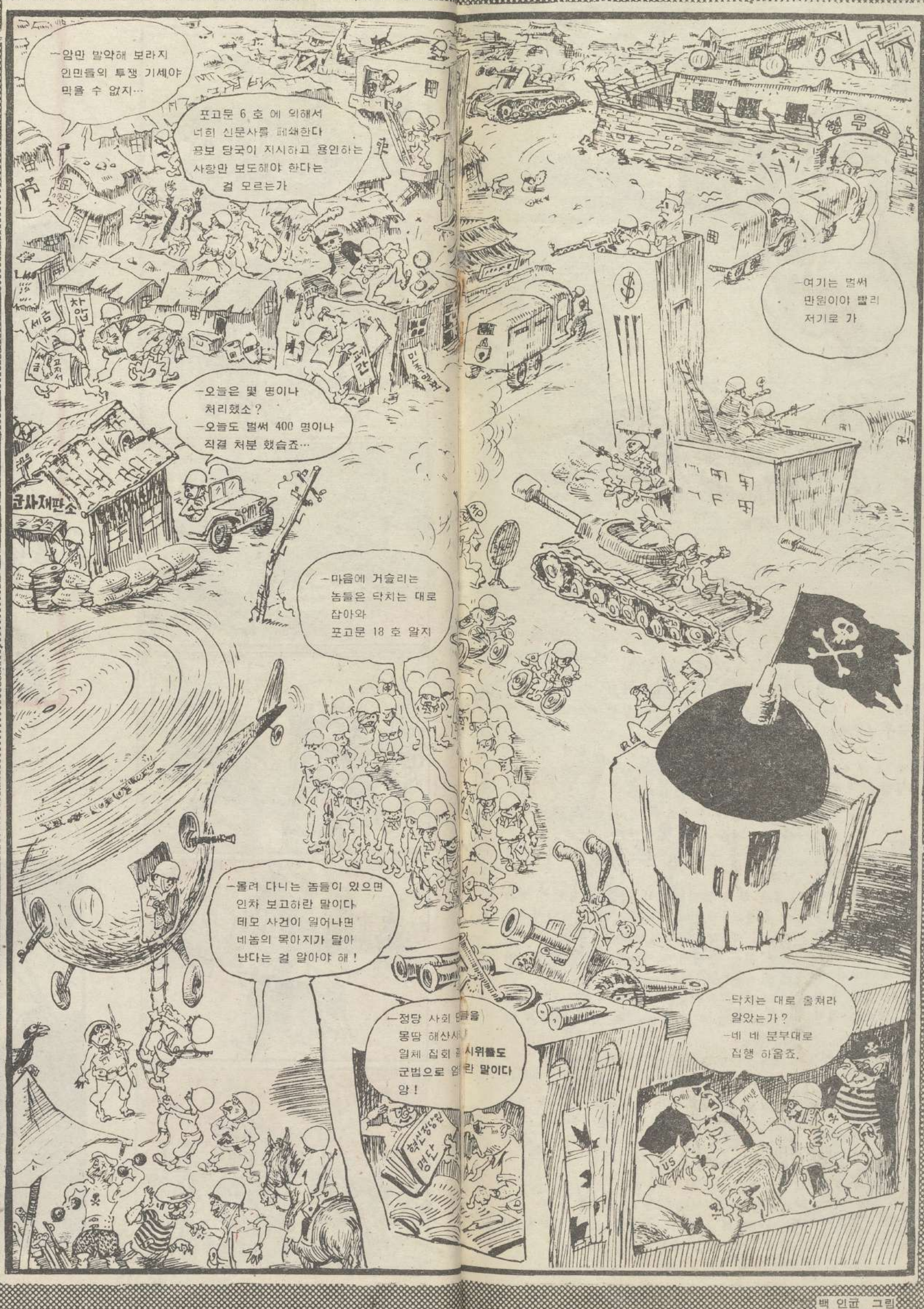
군사 파쇼가 가는 길

미제가 조작해낸 《군사 정변》 이후 미제의 흉악한 앞잡이로 등장한 장 도영 파쑈 도당들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생존의 초보적 권리마저 유린 말살 당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군사 파의 도가니



백 인규 그림

3두 괴물

미제는 미국 대사, 유엔군 사령부, 주한 미경제 협조처 등을 통하여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으며 식민지 략탈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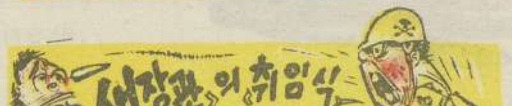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섶 지고 불 속에 뛰어 든다

문 룡판 그림

희생물

백 인규 그림



조 병조

새 《장관》의 《취임식》이 있다하여 직원들은 사무실에 모여 앉았다.

《대체 새로 취임한 장관님은 어떤 사람일가?!》

《장사에 솜씨 있는 분일가 그렇지 않으면 생판일가》

직원들은 모두 궁금했다.

바로 이때 새로 《취임》한 《장관》이 나타났다. 나타난 《장관》은 군복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러자 새 《장관》의 호위병이 《차렷》 하고 벽력 같은 구령을 내렸다.

어쩌라는 구령인지 직원들은 어리둥절하여 더러는 일어서기도 하고 더러는 그 자리에 앉아 머뭇거리기도 하였다.

《고노야로(이놈아) 차렷하라는 말이다》

호위병이 앞줄에 앉아 있는 한 직원의 목덜미를 잡아 일켰다.

그 통에 앉아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벌떡 일어섰다.

《이제부터 장관님의 취임사가 있다. 차렷!》 또 한바탕 구령이 내렸다.

《에 오늘부터 나는 상공부 장관으로 일하게 되였다. 당신들은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류언비어를 날조 류포하거나 규률 없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상!》

《쉬엿!》 이렇게 새 괴뢰 상공부 《장관》의 《취임식》이 끝났다.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에서 소위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사 파쑈 정권을 조작한 불한당 들의 《장관 취임식》은 모두 이렇게 진행되였다.

이날 《장관 취임식》이 끝난후 괴뢰 상공부 직원들 속에서는 《꼭 군대식》이라는둥, 《새 장관은 꼭대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아이》라는둥, 《이번 장관은 지난 날에 깡패 두목으로서 명성이 높았던 자》이라는 둥 별의별 말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 《장관》이 《젊은 아이든》, 《깡패 두목》이든 간에 우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더욱 안타까왔다.

그러던 개중에 소위 《군사 혁명 위원회》로부터 이른바 《공무원 집무 규정령》이라는 것이 하달되였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새 《장관》이 호위병을 거느리고 또 직원들 앞에 나타났다.

물론 이번에도 추상같은 《차렷》 구령이 내려졌으며 직원들은 모두 그 구령대로 움직였다.

《에 당신들에게 군사 혁명 위원회에서 하달된 공무원 집무 규정령을 전달하려고 한다.

첫째 공무원은 장관들과의 면회를 일체 엄금한다. 이것은 우리 장관들이 군사에 바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은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이상! 내가 전달한데서 의문 나는게 없는가?》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른 다음 뒤'줄에서 한 사람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랍니까?》

《할 일이 많다. 군사 혁명 위원회의 명령만 충실히 집행하면 된다. 지금 남한에서는 공장도 다 멎고,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모두가 정지 상태에 있다. 그것은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변소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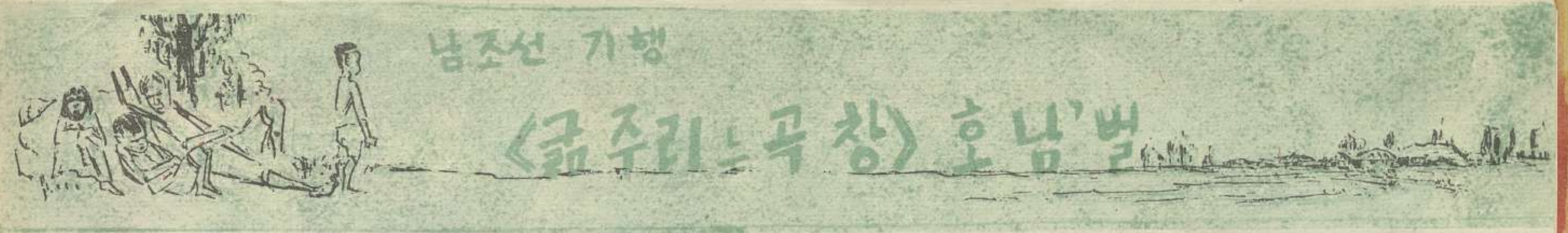
《칙쇼! 명령대로 움직이란 말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소위 《군사 정변》이 있은 이후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는 경찰, 헌병 등은 눈알이 뒤집혀 날뛰고 있으나 기타 모든 기관은 마비 상태에 빠져 들었다.

그날도 출근한 시간부터 책상을 붙잡고 하품을 하기 시작한 괴뢰 상공부의 한 직원은 《이놈의 세상이 망해도 보통 망하지 않았다니깐》 라고 울부짖었다.

남조선 기행

《굶주리는 곡창》 호남'벌



대대로 풍년가 울려 오던 호남'벌은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신음 소리와 원한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남조선에서 실시한 《농지 개혁》은 농민들을 더욱 무거운 채무의 노예로, 소작살이, 행낭살이, 머슴살이'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남조선 농촌에서는 아직도 중세기적 농기구들이 주도적 부문을 이루고 있다. 한 농민의 말에 의하면 논밭을 가는데 농기계나 소 대신 쟁기를 사람이 끌자니 립춘 때부터 넉달 동안은 꼬박 갈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미제와 괴뢰 도당들은 남조선 농민들에게 50 여 종의 가렴 잡세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테다가 면장의 연회비요 경찰 지서장 사택 수리비요 하면서 뜯어만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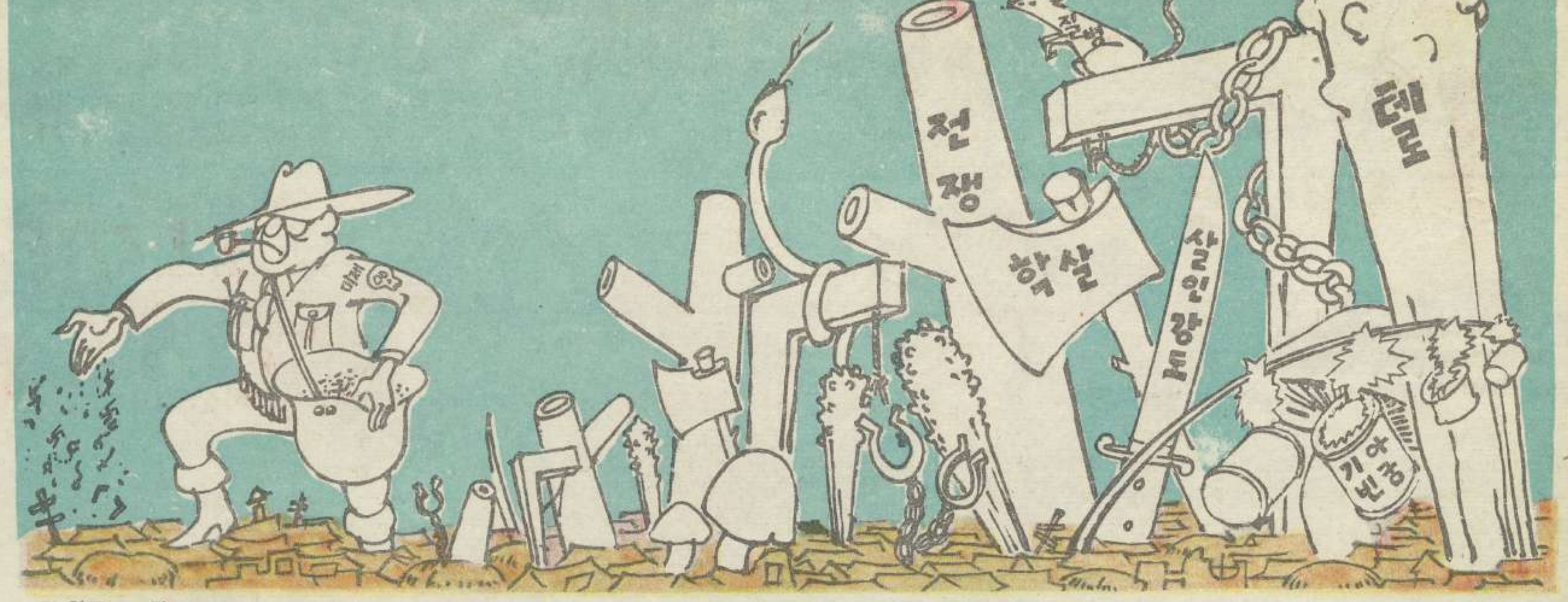
남조선 위정자들은 농민들을 략탈하는 데만 열안이 되여 관개 수리 사업을 하지 않아 가물면 《방축》이 말라 걱정이고 사흘만 비가 와도 홍수가 지는 판이다.

곡창 지대의 호남 벌에도 수십 수백명씩 무리를 지어 리농가 행렬이 늘어섰다. 먹고 살아 나갈 길 없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이 군상의 행렬, 이 얼마나 뼈저린 겨레의 비극인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정, 학정 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농민들, 그들은 자기들의 등허리를 지지 누르는 재난과 불행을 더는 참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도 생존의 권리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남녘 땅을 암흑 천지로 만든 원흉



최 영근 그림

망할 세상(5) (의문은 풀렸다)

미국식 《원조》

백 인규 그림

박 승히 그림

외교 원칙상 문제

로 철

미국 신문 기자 구락부의 넓은 홀은 벌둥지를 뒤집어 엎어 놓은 것처럼 웅성거렸다. 미제의 지시하에 남조선 군부내의 몇몇 악질 반동 분자들이 파쑈적인 소위 《군사 정변》을 조작한 후 이리 피탈 저리 피탈하면서 사람들의 눈 앞에 나타나기를 피해오던 케네디가 오늘에야 비로소 신문 기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기자들은 련거퍼 질문을 들이댔다. 부르죠아 반동 기자들은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흉악 교활한 역할의 내막이 될수록 덜 드러나도록 조심해 가면서… 그러나 많은 량심적 기자들은 미제의 이 새로운 범죄 행동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더욱이 대다수 아세아, 아프리카 출신 기자들의 질문은 화살처럼 신랄했다.

—어떻게 미군이 남조선 《국군》의 총알 하나하나까지 통제하고 있는 곳에서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 《정변》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정변》에 동원된 《국군》 30 사, 33 사가 몇달 전부터 미군의 지휘하에 《폭동 진압 훈련》이란 명목으로 서울의 요소요소들을 점령할 련습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4월 《정변》 며칠 전에 무엇하려 당신은 련합 참모 본부 의장이니 태평양 지상군 총사령관과 같은 미국 장군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였던가?

말문이 막힌 케네디는 항용 그러듯이 《침묵 전술》로 넘어 갔다.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당신들의 상상에 맡긴다.

이것은 많은 기자들의 더욱 큰 분격을 자아냈다.

—세계 여론을 우롱하지 말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모르고 있단 말인가?

—걷어치워라!

케네디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큐바 침공에서 실패한 후 소집되였던 기자 회견에서 화살 같은 질문 공격에 답변을 하지 못하여 《2 점짜리 대통령》 《오또기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던 그 망신 사리가 되살아난 것이 분명하였다.

정신을 차린 케네디는 100%의 미국식 교활성을 발휘하여 《모르겠다》는 말 대신에 보다 더 《유식한》말로 피변을 늘어 놓기 시작했다.

—장 도영이 《정변》을 일으키자 매그루더 그린이 어째서 《정권을 장 면에게 넘겨 주라》 라는 성명을 하였는가? 이 연극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연극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외교 원칙상 문제였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부대통령, 국무장관, 상, 하원의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입을 합해서 《정변에서 충격을 받았다》 《고무적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어떤 설계도가 사전에 작성되였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설계 도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외교 원칙상 문제였다.

—미국이 장 도영의 《군사 내각》을 《기정 사실》로서 《승인》한다고 성명한 것은 장 면 《정부》를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한 종전의 미국 행정부 성명과는 철학적 모순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외교 원칙상 문제였다.

우롱당한 신문 기자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웅성거렸다.

이때 초만원을 이룬 홀의 어데선가 닭알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 와서 케네디의 얼굴에 맞아 박살이 되였다. 곤죽이 된 얼굴을 하고 케네디는 벌떡 일어 섰다.

—이,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요, 용서치 못할 형법상 범죄 행위…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채 말을 맺지 못하는데 이때 장내의 어데선가 날카로운 조소의 목소리가 울려 왔다.

—대통령 각하, 잘못 리해한 것 갈소. 그것은 닭알에 관한 문제 혹은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외교 원칙상 문제라고 하여야 할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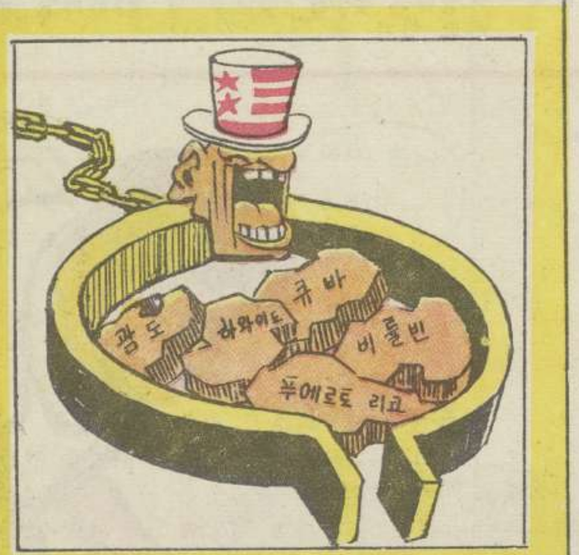
온 장내에서 폭소가 터졌다.

…케네디는 자기가 저지른 죄과로 해서 미국 통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신문 기자 회견 력사상 최대의 아빠카우트를 당하였다》(면바로 얻어 맞았다는 뜻). 그러나 공정한 세계 여론은 《아마도 장차는 남조선이야말로 미국 대통령이 노크아우트 (맞아 쓰러진다는 뜻)될 장소로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 창수 그림

피비린내 나는 미국의 력사(1)

1)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 오늘에 이르는 전 행정은 피 비린내 나는 침략과 전쟁의 력사로 가득 차있다.
미국 자본은 미 대륙 토착 주민들인 인디안족들의 거의 완전한 멸족과 그들의 재물에 대한 략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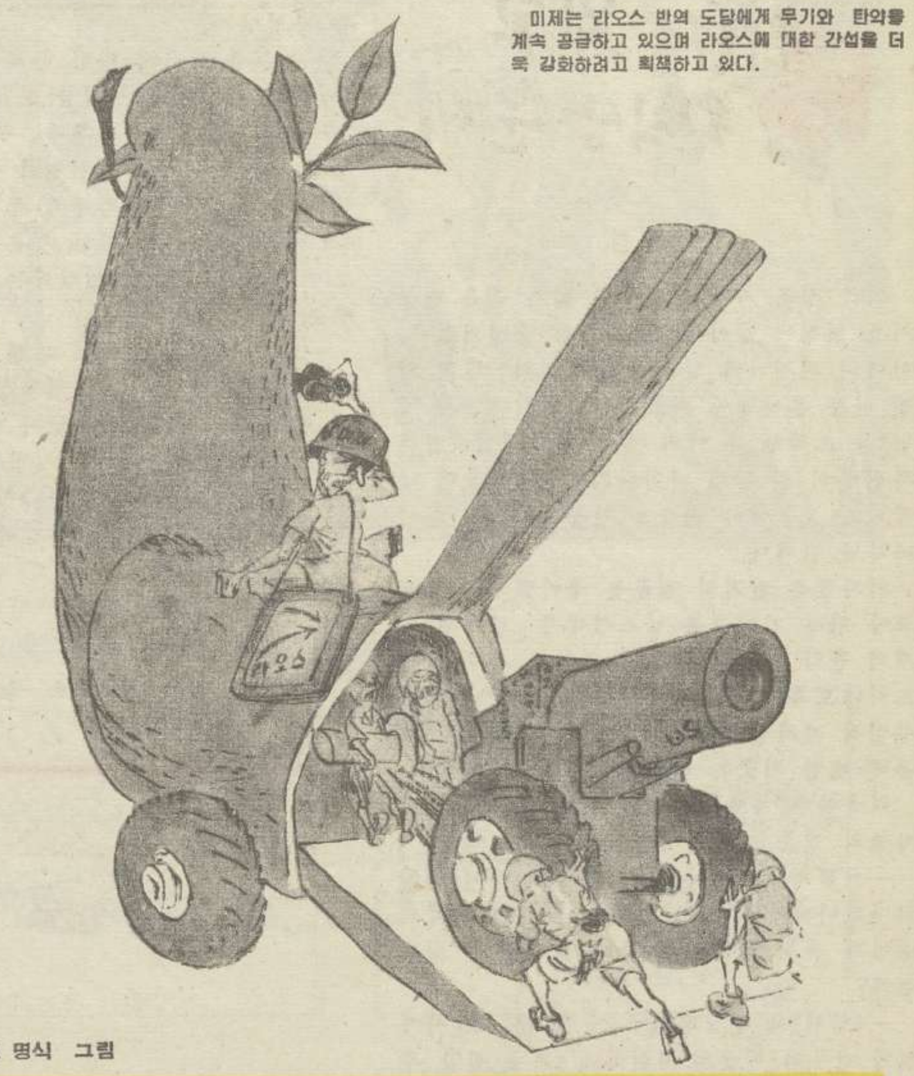
2) 미 제국주의자들은 1898년 서반아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켜 태평양 상에서 광도와 비률빈을 강탈하였다 한편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큐바, 푸에르,토리코를 예속시켰으며 하와이도를 사기와 협잡으로 집어 삼켰다

3) 미국 강탈자들은 독립 전쟁 (1775—1783)이 끝난 때로부터 1900년까지 무려 114차의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는데 그 결과 자기의 국토를 본래의 약 10배로 확장하였다.

안 창수 그림

미제의 상투 수단

미제는 라오스 반역 도당에게 무기와 탄약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라오스에 대한 간섭을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부질 없는 흉계

큐바를 반대하는 무력 침략이 파탄된 후 미제는 직접적으로 큐바를 무장 공격하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다.

백 인규 그림

《건망증환자》에 대한 처방

조 인석

스위프트의 《갈리바의 려행기》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전설적 라파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이 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학자들의 아까데미야로 유명하다. 이 아까데미야의 어떤 학자는 외에서 태양 빛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다 썼다. 그는 외에서 나오는 태양 빛을 모으려는 시험관 사이에 파묻혀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는 성공만 하면 그 태양 빛을 주지사의 정원에 적당한 값으로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주지사는 이 망상가의 성공을 머리가 희도록 기다렸으나 드디여 그 신기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라파트 아까데미야 망상가들의 우둔함을 조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20 세기 후반기인 오늘 라파트 아까데미야 학자들이 외에서 태양 빛을 얻으려는 것과 못지 않게 망상적인 계획을 꾸미며 그것을 실현해 보려는 자들이 있다.

현대적 라파트 아까데미야란 다름 아닌 미국 백악관이며 그 성원들이란 케네디를 위시하여 알렌 덜레스, 러스크, 백나마라 등 미국 대통령과 장관들이며 여기에는 아이젠하워, 트루맨, 맥아더 같은 호전 장군이 합세하고 있다.

이 망상가들이 해결하려는 연구 쩨마는 《큐바 재침공》이라는 것이다.

이 망상가들은 매일과 같이 백악관에 모여 앉아 미국 군함 30 척으로 큐바를 질식시켜야 한다느니 라틴 아메리카의 괴뢰군들까지 동원하여 큐바를 재침공해야 한다느니 갑론 을박 쑥덕 공론에 여념이 없다.

하여튼 그들의 골통에서 짜낼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짜내는데 《반공》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론도 나오고, 딸라 미끼가 아직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또 어떤 자들은 큐바 반혁명 잔당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긁어 보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지어는 얼마전에 큐바를 침공하였다가 몰살 당한 고용병들의 유가족에 격려의 편지를 보내여 그들을 발동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런데 미국식 라파트 아까데미크들은 가장 요긴한 것을 망각하고 있으니 그것은 오늘의 대세가 백악관에서 짜낸 강도적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긴 케네디도 지난 4월 20일 큐바 침공에서의 참패를 총화지으면서 그들이 얻은 가장 유익한 교훈의 하나가 큐바 인민의 력량을 모른데 있다고 실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케네디는 한달도 못되여 벌써 그것을 깡그리 잊어 먹은 모양이다. 건망증도 매우 위험할 정도로 심하다.

미국 장교들이 1년간 길러낸 고용병들이 큐바 민병에 의하여 단 72 시간 동안에 격멸당한 사실이 케네디의 기억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가 묵사발이 된 조선 전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던 아이젠하워, 트루맨, 맥아더 같은 작자들이 케네디의 《큐바 재침공 계획》을 쌍손을 들고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위험한 건망증은 케네디 혼자의 독점물은 아닌 모양이다.

물론 백악관의 시정배들의 건망증이 다만 생리적인 현상이라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파트의 아까데미크들의 몽상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나 워싱톤 호전 계층들의 건망증은 인류에게 아주 해롭다는 데 있다.

라파트의 어느 현명한 학자는 이런 몽상가들의 버릇을 떼는 데는 그 강심제보다 진정제를 써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이 처방은 워싱톤의 몽상가들에게도 매우 효력 있을 것이다.

악화된 징조

— 하나만 더 주슈. 걷기가 힘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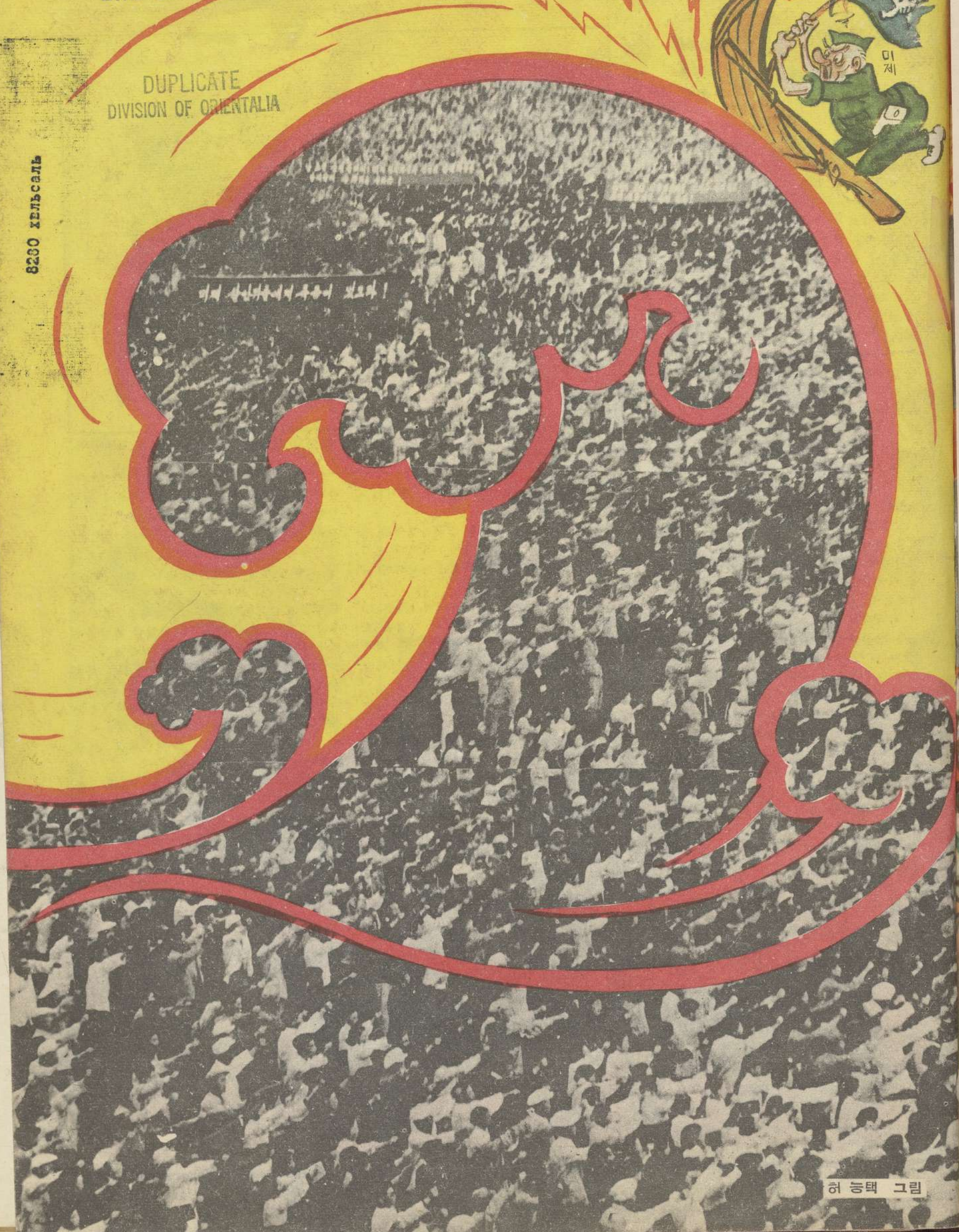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토막난 단결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 25474
발행 1961. 6. 20
(값 40 전)

미제 침략 군대는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8230 хельсаль